KAZA Newsletter

2020 Jul.
Vol.3



멸종위기 한국늑대 새끼 6마리, 대전오월드서 공개



멸종위기종인 한국늑대의 새끼가 오는 6일 일반에 공개된다.
대전오월드는 지난 4월 태어난 수컷 2마리, 암컷 4마리 등 새끼 한국늑대 6마리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새끼늑대는 지난 2008년 러시아 사라토프에서 들여온 늑대의 3세들이다.
오월드의 한국늑대 번식사업은 지난 2015년 이후 5년 간 답보상태에 놓였다.
새끼늑대가 태어날 경우 사육사가 개입하지 않는 자연포육 방식으로 성장을 유도했지만, 늑대 간 세력 싸움에 새끼들이 지속적으로 희생되며 5년 간 성체로 성장한 늑대가 없었던 탓이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 동물인 한국늑대는 자연상태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동물원 중 유일하게 16마리의 한국늑대를 사육 중인 오월드는 이번에 태어난 6마리까지 총 22마리의 늑대를 보유하게 됐다.

출처: 국민일보 사진:대전오월드

에버랜드 동물원, 천연기념물'큰고니'자연부화성공



에버랜드 동물원은 아빠 '날개'와 엄마 '낙동' 사이에서 지난 5월 28일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 큰고니에게 아름다운 오리가 되라는 의미가 담긴 '미오(美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큰고니는 기러기목 오리과에 속하는 동물이다.
흔히 백조로 불리며 순백색 몸에 노란색 부리가 특징인 '큰고니'는 야생에서 매년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1-2호로 지정돼 있다.

사실 큰고니 가족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숨겨져 있다.
아빠 '날개'와 엄마 '낙동'이는 지난 1996년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리 부근에서 심한 부상을 입은 채로 조류보호협회에 구조돼 에버랜드 동물원에 긴급 후송됐었다.
특히 우측 날개에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된 아빠 '날개'는 다행히 수의사와 사육사들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생명은 구했지만, 날개 일부를 절단할 수 밖에 없었고 더는 하늘을 날지 못했다.

에버랜드 동물원은 큰고니 커플이 올해에는 꼭 2세를 가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해주고 아늑한 집 구조물도 마련해줬으며 낙엽, 억새풀, 나뭇가지와 같은 둥지 재료를 인근 야산에서 직접 공수해와 크기별로 준비해주는 등 지난 겨울부터 각별히 신경 써왔다.

특히 임신, 산란기에는 큰고니 커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타민, 칼슘 등이 포함된 영양식 공급에도 많은 정성을 쏟아 왔다.

그 결과 20여 년간 이어져 온 큰고니 커플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수의사와 사육사들의 정성이 더해져 드디어 아기 큰고니 '미오'가 지난 5월 태어나게 됐고, '날개'와 '낙동'이는 그렇게 늦깎이 부모가 됐다.

출처 : 더퍼스트미디어 사진: 에버랜드

Kor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KAZA)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1급 토종동물‘산양’두 번째 번식 성공



서울대공원 동물원 종보전연구실은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 토종동물인 산양 번식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의 산양 번식은 작년 6월 이후 올해가 두 번째다.

산양은 한국 멸종위기1급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토종동물이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을 통해 설악산, 오대산, 월악산 등에서 복원사업을 진행중이다.

산양이 태어난 곳은 종보전연구실 소속 '토종동물번식장'으로 동물원 내에 있지만 관람객이 볼 수 없는 제한된 곳이다. 산양은 매우 예민한 동물로 원활한 번식을 위해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는 이 곳에서 사육되고 있다. 부모 산양은 지난 2017년 11월 종복원기술원에서 기증받은 개체로 작년 6월 8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번식에 성공했다.

서울대공원 종보전연구실은 산양 외에도 한국에 서식하는 토종동물들의 복원에 힘쓰고 있다. 수몰 위기에 처한 저어새의 알을 구조해와 인공부화 및 육추하고 있으며 삵, 여우 등의 번식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도심에서 자취를 감춘 금개구리를 증식하여 다시 도심에 방사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사진: 파이낸셜뉴스

SEA LIFE 시드니 아쿠아리움의 수석 큐레이터인 크리스 브라운의 인터뷰

전세계적인 사건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수족관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6월 1일에 다시 문을 열었다.) 폐쇄 기간 동안 직원들은 동물 보호와 보존 프로젝트를 계속해왔다.

보존 프로젝트

브라운은 SEA LIFE Sydney에서 다양한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거북이 구조이다.

또 다른 보존 프로젝트에는 시드니 해마라고도 알려진 화이트 해마가 있다.

"SEA LIFE Sydney는 지난 10월 해마 몇 쌍을 수족관에 들여와 이곳에서 번식하도록 허용했다. 우리는 그 이후로 줄곧 아기들을 키웠다. 아기들이 크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지역에 풀어줄 것이다.”

새 서식지 만들기

시드니 항구에서 해마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서식지가 없다. 그래서 ‘해마 호텔’ 인 새로운 종류의 서식지를 만들기로 했다. ‘호텔’은 해마들이 먹을 수 있는 잡초와 환경으로부터 적응될 때까지 몇 달 동안 항구에서 지내게 된다.

상어 구조

브라운은 "지난 번에 큰 그레이 너스 샤크 두마리가 호수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한 마리는 죽은 채 발견되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구조해 해안으로 돌려보냈다.

해양쓰레기 처리

직원들과 라벤더 베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카약을 타고 달링하버를 노닐며 그곳에 떠있는 쓰레기를 며칠동안 수거했다. 쓰레기를 줍는 것을 돕는 기업들이 돈을 모아, Seabin을 설치하였다. Seabin은 매크로와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떠다니는 파편을 가로채고 추가적인 필터로 극세쓰레기까지 빨아들이는 쓰레기통이다.

쓰레기를 필터백에 넣어 보관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우는 것이다. 바쁜 직원들에게 좋은 일이다.

미래의 과제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바다가 직면한 난제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은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때로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동물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행동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내가 열정적이지 않았다면 나는 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큰 장벽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족관의 아름다움이다: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그 열정과 흥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동물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행동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내가 열정적이지 않았다면 나는 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개별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뿐이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커뮤니티와 연결

브라운은 SEA LIFE 시드니 아쿠아리움의 직원들과 함께 아쿠아리움을 넘어 더 넓은 지역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참여, 훈련, 개발을 탐구해 왔다.

"단순한 수족관에서 그 이상이 되는 방법 ;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수족관과 동물원의 주요 역할은 동물과의 연관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관계를 형성할 때,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한다. 이곳과 야생 동물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대중이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존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쪽으로의 기대감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한다.

"동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야생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보는 것은 그저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진정한 관심의 발전이다.”

출처:blooloop.com

Kor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KAZA)

환경부, '라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첫 지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1일부터 '라쿤(Procyon lotor)'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라쿤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후 최초로 지정되는 생물종이다.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에서 2급 판정을 받았다.

라쿤은 생김새가 너구리와 유사하며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지금까지 약 200여 마리가 국내로 수입되어 애완용 또는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이 중 일부가 개인 사육장 등에서 탈출 또는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용 유사동물원이 생겨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라쿤이 어린이 등에게 체험 형태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고, 그 개체수도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유기되어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생존능력이 우수하여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라쿤은 광견병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으로 알려져 애완·관람용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유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더리더

한국동물산업협회 출범...동물 복지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 나선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한 반려동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네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반려동물 종류 역시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해 물고기, 새, 파충류, 햄스터 등 다양화되고 있다. 더불어 반려동물 분양 및 이색동물 카페 등 동물과 관련해 다양한 산업이 새롭게 등장했다.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동물산업협회(대표 지효연)'가 새롭게 출범했다. 더욱 향상된 동물 복지와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협회로, 이색동물을 사랑하는 소규모 동물카페 및 양서파충류 판매업, 실내동물원 등 100여 개 단체가 함께한다.

한국동물산업협회 지효연 대표는 "동물 산업 허가제를 비롯해 사육을 위해 갖춰야 할 요소들을 다룬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가 완비돼야 진정한 이색 동물복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색동물은 현행법으로 애완동물로 분류된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반려동물로, 라쿤이나 미어캣, 파충류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농장 또는 국내 가정에서 길러진 2세대, 3세대 동물을 의미하는 단어다.

지 대표는 현재 '야생동물'로 뭉뚱그려 표현되는 이색동물의 복지를 위해 제도권 안에 이색동물이 들어오고 반려동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야생동물은 산이나 들, 강, 바다 등에서 사계절 내내 자력으로 생존하고 먹이를 직접 사냥하는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길러지는 라쿤이나 미어캣 등의 동물은 사람이 돌보고 실내에서 길러져 실제 야생에서는 클 수 없고, 명확한 복지정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 대표는 "최근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을 포함해 한국조차 이색동물을 반려동물로 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프랑스처럼 누가 어떤 동물을 어떤 환경에서 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대표는 이어 한국동물산업협회의 목표를 '동물 산업에 대한 허가제' 입법으로 정했다며, 현재 동물카페 전시업과 관련된 법의 부재를 채우는 동시에 구체적인 복지 규정 마련을 통해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완성하겠다는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지 대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물들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양육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동물단체와 환경부, 한국동물산업협회가 함께 이를 논의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명 시대, 한국동물산업협회의 출범과 함께 황무지와 같은 동물 산업 관련 제도가 한발 발돋움하는 내일을 기대한다.

출처: 헤럴드경제

Kor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KAZA)